신태용호, 라트비아 상대 유종의 미?…현재 1승1무

내일밤 터키서 최종 평가전…러시아월드컵 '독일' 대비 가상상대

국내파 선수들 추스르기 한창…김신욱 '눈도장' · 수비진 '글쎄'

터키 안탈리아에서 옥석 가리기에 한창인 신태용호가 라트비아를 상대로 마지막 평가전을 치른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3일 밤 11시30분(한국시간) 터키 안탈리아의 마르단 스타디움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31위 라트비아와 최종 평가전을 한다.

앞서 몰도바(1-0 승), 자메이카(2-2 무)전에서 1승1무를 기록중인 대표팀은 라트비아와의 마지막 평가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각오다.

역대 전적은 1승으로 한국이 앞서 있다. 한국은 2010년 1월 스페인 말라가에서 열린 평가전에서 김재성의 골로 1-0으로 승리한 바 있다.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한 라트비아는 러시아월드컵 본선에서 만나게 될 '전차군단' 독일의 가상 상대다. FIFA 랭킹은 한국보다 낮지만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라트비아는 유로 2004 본선에서 독일과 무승부를 거두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후 세계 대회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힘과 끈끈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선이 굵은 축구를 구사한다.

신 감독은 이번 전지훈련을 통해 월드컵 본선에 나갈 국내파 선수들 추스르기에 한창이다.

러시아월드컵 무대를 밟을 수 있는 선수는 23명이다. 손흥민(토트넘), 기성용(스완지시티), 권창훈(디종) 등 유럽파 선수들이 대부분 본선 무대를 밟을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나머지 자리를 놓고 K리그와 J리그(일본), 중국 슈퍼리그 선수들이 경쟁을 해야 한다.

국내파 선수중에는 김신욱(전북)이 앞서있다. 김신욱은 A매치 3경기 연속 골로 눈도장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2골을 넣은 김신욱은 몰도바, 자메이카전에서 모두 골을 기록하며 한국 선수로는 2011년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의 카타르 아시안컵 3경기 연속골 이후 7년 만에 A매치 3연속 득점 선수가 됐다.

김신욱은 이번 라트비아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김신욱이 골을 넣는다면 새 기록을 쓰게 된다.

해결해야 할 숙제도 있다. 고질적인 수비 불안이다. 신 감독은 몰도바와 자메이카전에서 모두 4-4-2 전술을 꺼내들었다. 몰도바전에서는 무실점 승리를 거뒀지만 자메이카전에서는 중앙수비수들의 실수로 골을 내줬다.

신태용호는 출범 후 자메이카전까지 총 11경기를 치렀다. 7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지만, 11경기에서 14실점을 허용했다. 경기당 1.2골을 헌납했다. 월드컵 본선에서 만나게 될 상대는 모두 한국보다 강하다. 월드컵 본선까지 해결해야할 과제다.

한편 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5일 귀국하는 신태용호는 다음달 유럽파 포함, 최정예 멤버가 모여 북아일랜드(3월24일), 폴란드(3월28일) 전 원정 A매치 2연전을 치른다.

뉴시스

평창올림픽서 인공기 흔들며 북한 응원해도 될까?

내 · 외국인 모두 인공기 사용시 형사처벌 받을수도

2017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아이스하키 여자 세계선수권대회 남북 대결이 강원 강릉시 강릉하키센터에서 지난해 4월6일 열린 가운데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안전요원과 경찰이 마이클 스파보르(캐나다)씨에게서 인공기를 빼앗고 있다.

오는 9일 개막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서 인공기를 흔들며 북한을 응원해도 될까.

위키백과에 따르면 인공기는 북한을 칭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이다. 인민공화국기를 줄여 인공기로 부른다. 북한은 1948년 7월 인민회의 제5차 회의에서 태극기를 폐지하고 인공기를 국기로 정했다. 별칭으로 홍람오각별기, 람홍색공화국기로도 부른다.

1일 강원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따르면 내·외국인 모두 인공기를 사용해 북한 선수들을 응원하면 조사 과정을 거쳐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지난해 4월 강릉에서 열린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아이스하키 여자세계선수권대회 남북 경기 때 관중석에 앉아 있던 캐나다 국적의 마이클 스파보르 씨가 인공기를 흔들며 북한 선수들을 응원했다.

이를 본 평창조직위 보안요원과 경찰은 스파보르 씨에게서 인공기를 압수했다. 인공기가 반입금지 물품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며,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북한은 국가보안법이 정의하는 반국가단체에 해당돼 자칫 선전선동 등의 조항에 저촉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강원경찰청 보안수사대 관계자는 "내국인이 인공기를 들고 있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외국인도 어떤 목적으로 인공기를 사용한 것인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스켈레톤 세계랭킹 25위 김지수, 평창서 메달 도전

정상급 스타트+홈트랙 이점…깜짝 메달 기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금메달이 유력한 종목을 꼽으라면 흔히들 전통의 효자종목 쇼트트랙과 스피드 스케이팅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평창에서는 이들 종목과 함께 스켈레톤이 새롭게 효자종목으로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스켈레톤 대표팀은 올 시즌 세계 최강자로 우뚝 선 윤성빈(24·강원도청)을 앞세워 대한민국 썰매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에 도전한다.

관심은 온통 윤성빈에게 쏠려 있지만, 조용히 반란을 꿈꾸는 선수가 있다. 윤성빈의 훈련 파트너이자 동갑내기 친구인 김지수(24·성결대)다.

2017~2018시즌 국제봅슬레이경기연맹(IBSF) 남자 스켈레톤 랭킹 25위인 김지수는 평창에서 깜짝 메달에 도전한다. 랭킹 25위의 선수가 무슨 메달이냐? 하지만 결코 허황된 소리가 아니다.

지난 시즌 막판 월드컵 무대에 데뷔해 올 시즌 3차례 월드컵에 출전한 김지수는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지난해 12월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서 열린 월드컵 5차 대회에서 1·2차시기 합계 1분47초25로 7위를 했다. 월드컵 대회 출전 5번 만에 톱10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뤘다.

김지수는 올 시즌 총 8차에 걸친 월드컵 중 3차례 출전에 그쳤다. 대표팀은 간판 윤성빈을 제외하고 월드컵 무대에 김지수, 이한신, 김준현을 번갈아 참가시켰다. 윤성빈처럼 꾸준히 월드컵 무대에 나갔다면 랭킹 10위 안팎으로 시즌을 마쳤을 수도 있다.

김지수의 강점은 윤성빈과 마찬가지로 스타트에 있다. 스타트에서만큼은 이미 최정상급 기량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이는 기록으로도 드러난다. 김지수는 스위스 휘슬러에서 펼쳐진 월드컵 3차 대회에서 16위에 머물렀지만 스타트는 1·2차 모두 4초53을 기록, 전체 선수 중 윤성빈(1차 4.52초, 2차 4.50초)에 이어 두 번째로 빨랐다.

7위를 했던 5차 대회에서는 1차 4.86초, 2차 4.82초로 금메달을 딴 '황제' 마르틴스 두쿠르스(라트비아 1차 4초90, 2차 4초85)를 앞섰다. 은메달을 차지한 윤성빈(1차 4.85초, 2차 4.80초)과도 불과 0.01~0.02초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김지수는 스켈레톤에 입문한지 4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행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실수가 있다. 무엇보다 경험이 중요한 주행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다.

홈 트랙의 이점이 큰 종목 특성상 코스를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경기를 치르느냐가 순위에 큰 영향을 준다.

김지수는 지난 시즌 인스부르크에서 개인 첫 월드컵 무대에 섰고 당시 24위에 그쳤다.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같은 트랙에서 7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올림픽은 월드컵과 달리 이틀에 걸쳐 4차례 주행 결과를 합산해 순위를 결정한다. 김지수가 홈 트랙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실수 없이 경기를 마친다면 메달권 입상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이용 봅슬레이·스켈레톤 대표팀 총 감독은 "김지수의 스타트 기록이 윤성빈에 비해 0.01초, 0.02초 뒤진다. 평창에서 해내야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마음을 비우면 동메달의 향방은 지켜봐야 한다"며 "김지수의 스타트 컨디션이 좋고,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윤성빈의 상대는 두쿠르스가 아니라 김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김지수는 "윤성빈과 두쿠르스를 이긴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김지수, 과연 올림픽 본 무대에서 다크호스가 될 수 있을는지, 흥미진진한 관전포인트가 하나 더 추가됐다.

이청용, 볼턴 복귀 무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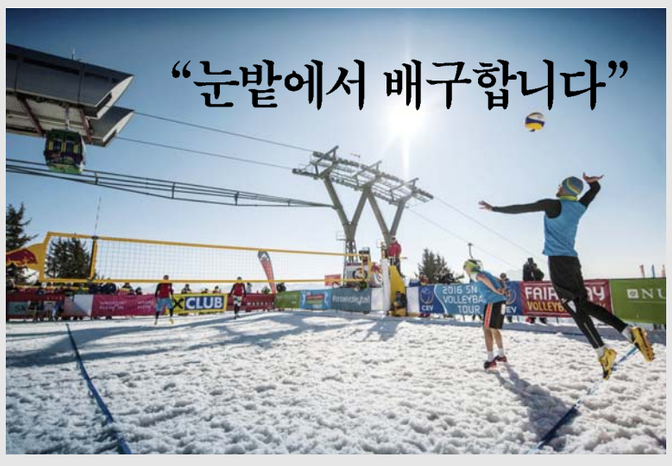
크리스털 팰리스 '잔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크리스털 팰리스에서 뛰고 있는 이청용의 볼턴 원더러스 복귀가 무산됐다. 이청용의 매니지먼트사인 인스포코리아는 1일(한국시간) 이를 공식 발표했다.

크리스털 팰리스와 볼턴은 1월31일 이청용의 임대 이적에 합의했다. 크리스털 팰리스에서 출장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청용은 자신을 강력하게 원하는 챔피언십(2부리그) 소속 볼턴에서 경기력을 끌어올리며 2018 러시아월드컵 진출을 노린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크리스털 팰리스는 이적시장 마감 직전 돌연 말을 바꿨다.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에서 측면 공격수인 바카리 사코가 부상을 당하자 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이청용을 붙잡기로 한 것이다. 로이 호지슨 크리스털 팰리스 감독이 이청용의 잔류를 구단에 요청했다.

어느 정도 출전 기회가 보장된 볼턴에서 실전 감각을 익히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크리스털 팰리스가 붙잡기는 했지만 얼마나 많은 기회를 부여할는지는 알 수 없다.



평창올림픽서 스노 발리볼 첫선…비치 발리볼 흡사

겨울을 대표하는 이미지인 눈과 실내 스포츠인 배구가 만난다. AP 통신은 1일(한국시간)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스노 발리볼이 펼쳐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스노 발리볼은 눈에서 경기를 치르는 것을 제외하면 해변 모래밭 배구인 비치 발리볼과 흡사하다. 팀당 2명의 선수로 구성되며 선수들은 맨발이 아닌 신발을 신고 경기한다.

국내팬들에게는 생소한 종목이지만 유럽에서는 서서히 확산되는 추세다. 이미 17개국이 스노 발리볼을 즐기고 있고, 다음달 오스트리아에서는 유럽챔피언십이 열릴 예정이다.

스노 발리볼의 쇼케이스는 14일 평창의 오스트리아 하우스에서 열린다. 비치 발리볼, 배구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세계 여자 배구계를 주름잡는 김연경도 잠시 짬을 내 스노 발리볼을 함께 한다.

프로야구 비디오판독 5분으로 제한

투수교체 룰도 변경

프로야구 비디오 판독을 최대 5분으로 제한하는 등 2018시즌 야구규칙이 소폭 개정됐다.

KBO(총재 정운찬)는 지난달 24일 KBO 회의실에서 규칙위원회를 열고 2018 리그규정과 야구규칙을 심의했다. 올해부터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해 비디오판독 가능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5분 내에 판정을 뒤집을 만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원심을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 메이저리그는 2분의 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규칙위원회는 또 리그규정 제15조도 변경해 경기 중 선발 또는 구원투수가 심판진이 인정한 명백한 부상으로 인해 첫 타자를 상대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같은 유형의 투수로 변경해야 한다는 규정을 선발투수에 한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교체되는 선발투수의 투구 유형도 좌투수-좌투수, 우투수-우투수만 동일하게 하고, 언더핸드와 사이드암 규정은 삭제했다. 구원투수의 경우는 교체 시 투구하는 손이나 유형이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고척 스카이돔에 적용되는 그라운드룰도 일부 변경해 파울 지역 천장에 맞고 낙하한 공을 잡으면 아웃으로 판정하던 것을 포구 여부와 관계없이 파울로 판정하기로 했다.

규칙 제10.07(주2)(2)와 관련해서는 타자가 안타를 쳤으나, 3루주자가 홈을 밟지 않아 3번째 아웃이 선언됐다면 이때 타자의 기록은 단타로만 기록하던 것을 단타 또는 2루타로 기록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규칙위원회는 이 밖에도 올해 시범경기부터 경기 중 퇴장, 주자 재배치, 수비 방해 등 특이 상황이 발생할 경우 팬과 미디어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심판 팀장(팀장이 대기심인 경우 선임심판)이 직접 장내 안내방송을 통해 해당 판정을 설명하기로 했다.

구단의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구장 내야 펜스 광고에 LED 보드 설치도 가능하도록 했으나, 심판이 플레이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규칙위원회에서는 더블 플레이 방해 금지 규정과 자동 고의사구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올 시즌 미국, 일본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제대회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해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